

# 第六次 ARCASIA 理事會 參觀記

## 大韓建築士協會 理事國 加入承認

宋 基 德

본협회 이사, 국제위원회 위원장  
(주) 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ASIA 建築士들의 모임인 ARCASIA 總會 가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大韓建築士協會에서는 吳雄錫 회장, 金知德 국제위원회 간사와 국제위원회 위원장인 본인 등 3 인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ARCASIA 총회 會員國加入과 동시에 理事國으로 선정되게끔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고 귀국하였다. 이번 理事會의 참관과 국제화시대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의 지표와 자세를 느끼대로 소감을 적고자 한다.

### 第六次 ARCASIA 理事會議에 參席

지난 11월15일 부터 11월19일 까지 5 일간 인도의 최대도시인 봄베이市에서 ARC-ASIA 理事會議가 개최되었다.

우리 협회로서는 작년 10월25일 부터 10월29일 까지 필리핀 수도 마닐라시에서 제 1회 ARCASIA총회가 열렸을 당시 金枝泰 전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이 참석한바 있고 ARCASIA總회의 의의와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은 작년도 建築士誌 11월호에 소개하여 잘 인식하고 있을줄로 안다.

우리 협회로서는 가입 문제를 놓고 자문위원회와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ARCASIA 가입신청서를 1985년 10월16일자로 정식으로 발송하였던 것이다. 이 신청서에 대한 회신으로 이번 제 6 차 理事會에 參觀國으로 초청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11월14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다음날 새벽 1시(현지시간)에 인도 봄베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印度建築士協會에서는 자정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항 영접계획대로 ARCASIA 이사회 대표단을 영접하였다. 우리 일행은 이들의 안내로 봄베이 공항근처의 Farayas Hotel로 안내되어 여장을 풀었다.

11월15일 우리 일행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아침식사를 하러 호텔 레스토랑에 가니 泰國 대표단이 우리와 거의 같은 시각에 도착하였고 바로 옆방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잠시후 印度建築士會 회장인 R. S. Khambatta 씨가 우리를 예방해 왔고 泰國 대표단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속속 도착하는 타국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 회의는 아시아 10개국의 2인내지 5인의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표단들은 같은 建築士라는 직업의식 때문인지 여러가지로 공동관심사가 잘 소통되고 대화도 재미있게 연결되었다. 상호 각국의 건축경기와 건축사의 사회적인 여러가지 여건 등 많은 것을 대화했다.

### ARCASIA 會議의 조직과 활동

여기서 ARCASIA 회의의 목적과 조직, 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단히 적고자 한다.

ARCASIA 총회 설립목적에서 밝혔듯이 ARCASIA 總會는 아시아 10개 회원국 및 2개의 참관국의 建築士協會 결속단체로서 성격이 뚜렷하다.

각기 다양한 문화와 정치·경제 여건속에 독특한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自國의



ARCASIA 理事會議 光景



ARCASIA 理事會議中 吳雄錫 會長

전통과 새로운 기술 향상을 위하여 상호문화교류를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상호 靑年建築家들의 특수교육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발전시킬 목적으로 ARCASIA 총회를 구상하였던 것이며 ARCASIA 총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지역 각 국가의 建築士協會를 통한 단합과 우의증진, 기술증진, 예술문화의 발전, 건축교육 및 자연과학분야의 협조 유대관계를 키워 나간다.

둘째, 각 會員國協會를 통한 전문적인 관계유지, 상호 국가 협회간의 협력 및 협력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국제간 국가적 차원에서 각국 회원국 협회의 建築士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하고 대표한다.

넷째, 자기가 처해있는 자국의 사회적인 건축사 역할의 인식 증진에 전력을 다한다.

다섯째, 각국가 사회에서 활동중인 建築士의 자질개발 및 그 교육발전을 장려한다.

여섯째, 生活空間의 환경연구 및 건축기술 증진을 도모한다.

이와같은 목적과 취지로 ARCASIA는 이번까지 여섯차례의 理事會議를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제7차 理事會議 및 제2차 ARCASIA 總會를 개최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ARCASIA 理事會議에서 우리 大韓建築士協會를 滿場一致로 會員國 및 理事國으로 承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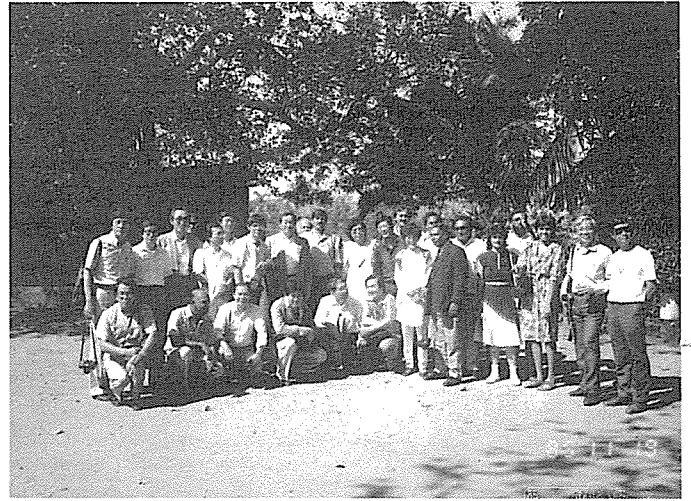
1985년 11월16일(토) 14:00 Abea 회의(ARCASIA교육분과위) 직전 간담회에서 뜻밖의 내용이 있었던 것을 알았다. 우리의 회원국 가입에 장애의 요소가 발생했다. H國의 대표가 우리協會의 ARCASIA 가입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부당한 발언을 한것을 T國 및 S國의 대표단으로부터 인지했던 것이다. 우리 일행이 타 대표단보다 조금 먼저 도착하여 T國 및 S國의 대표들과 친밀해진 관계로 우리의 가입에 장애가 있음을 가르쳐준 것이다.

우리는 무난히 가입할 것으로 알고 印度에 왔는데 이렇게 뜻밖의 장벽이 있을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분단문제도 문제이러니와 대내적인 장애요소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던 사실이다. 우리 대표 일행은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전략을 작성했다. 會員國加入 토의는 1985년 11월18일(일) 제3차 회의에서 ARCASIA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中共, 自由中國, 大韓民國 등에 대하여 가입 심사를 하는 것이다. 아직 시간이 48시간 남아 있어서 충분한 작성과 막후접촉에 대한 계획수립을 할 수 있었다.

우리 대표단의 지혜와 T國, S國, P國 대표들의 助言으로 우리는 가입조건에 충분한 설명자료인 브리핑카드와 백데이터를 밤새워 작성하였고 막후교섭도 조직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던 것이다. 현지에서 알았던 사실이지만 자유중국과 중공이 국호문제로 4년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아직 가입이 보류된 것을 認知했다. 이와



理事會議 開催前 ARCASIA 會長團과 協議하는 光景



ARCASIA 理事會 參加 全代表團이 印度 建築大學에서 紀念 촬영

같은 내용을 알고서 우리는 더욱 긴장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1985년 11월18일(월) 13시 제3 회의가 시작되었고 회의중반에 예정됐던 회원국 신규가입심사가 시작되었다. 가입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라 자유중국의 가입심사가 먼저 이루어졌다. 잠시후 大韓建築士協會의 가입심사에 착수했다. 먼저 吳雄錫 회장의 인사발언과 보충설명으로 본인과 金知德 간사의 순으로 상세히 우리 협회의 내용과 회원의 활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각국 대표들은 2일전 H國의 대표로부터 우리 협회에 대해 부당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많은 질문을 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약 30분간의 설명과 질문이 끝난뒤 우리 일행은 加入審査會場으로부터 퇴장했다. 가입심사가 계속되는동안 우리는 호텔 코피숍에서 자유중국대표단과 우리協會와 自由中國 建築士協會와의 협력을 논의했다. 약 30여분후 제3 회의가 끝나고 대표들이 회의장으로부터 나왔다. 각국 대표단들은 우리에게 밝은 표정으로 접근하며 만장일치로 우리의 가입이 결정됐다고 말해주며 축하인사를 해주었다. 우리는 3일간의 가입을 위한 설득과 준비로 많은 긴장과 신경을 썼던 탓인지 초조감과 불안감이 쌓였었는데 가입축하인사를 받는 순간에 환희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줄 몰랐다.

각국 대표단에게 감사했고 특히 H國 대표에게 마지막에 협조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더니 앞으로 ARCASIA총회를 위하여 협력하자고 답하였다. 우리 대표단의 기쁨에 반하여 자유중국 대표단에게는 또 한번의 국제적 교류가 냉혹하다는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4년에 걸쳐 꾸준히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던 자유중국과 중공의 가입이 양국간의 국호사용문제로 재차 保留된 것이다.

自由中國 대표단은 가입신청 인사에서도 표현되었지만 아시아 각국과 공동보조를 위하여 참관인사를 간곡히 표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中共측 입장에서는 자유중국을 中共領土의 일개의 쩌으로 인정하고 장래 중국대륙이 대만과 통합될 때 2개의 중국대표가 있을수 있느냐고 반대했으며 자유중국은 Taipei China로 중공은 Peking China로 호칭하자고 요구했던 것이다.

ARCASIA 이사회는 중공, 자유중국 양국 당사자간의 해결을 요구하며 보류시켰던 것이다.

### ARCASIA總會 會員國加入 및 理事國 承認으로서의 意義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對外輸出, 對外經濟 활동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제상호교류가 빈번한 이때 인근 아시아 국가간의 상호교류는 국제화시대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국제적인 흐름과 상대국가의 건축예술과 건축기술 상호정보 교환 등 우리에게서는 안될 절실한 요건이다.

우리는 과거 우물안 개구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업무 권한을 타국의 建築士에게 빼앗겨 좋은 시절을 다 놓쳤던 것이다.

Oil Doller의 寶庫인 중동의 개발붐에 우리는 강념어 불보듯 한것도 우리의 對外感

覺의 무지에서 온 결과이다.

앞으로 우리 建築界나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런 유산을 또다시 남겨줄 수는 없는 것이다.

國際적으로 적극 참여 노력하여 선진기술 대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남북한 분단의 비극의 주인공인이라 북괴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도전에 항상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協會가 북한보다 먼저 ARCASIA에 참여하게 된것은 많은 對內 對外的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앞으로 자라는 후배 建築士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 大韓建築士協會가 앞으로 國際적으로 해야 할 일

前에 여러번 여러면으로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뒤늦게나마 참여케 된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되며 선진조국을 위하여 타국의 활동 노력에 뒤지지 않게끔 보고, 느끼고, 열심히 뛰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적극자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로만 선진 선진 하지말고 능력과 기틀을 만들어 차차 우리도 국제회의개최 등 많은 힘을 기울여 타 회원국보다 앞서가는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기틀과 능력을 갖추려면 人材를 키워야겠다. 우리는 항상 국제용어 소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많은 국제회의에 대비하여 앞으로 젊고 유능하고 참여의식이 강한 회원을 많이 키워서 배출하여 각국 대표들과 거침없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위치와 능력을 과시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建築士協會가 ARCASIA 理事國이 됨으로써 1986년 10월 중순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개최되는 제7차 理事會議, 第2차 ARCASIA 總會에 많은 회원이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이번 ARCASIA 總會의 막을 내리면서 여러나라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친절, 협조에 대하여 감사하며 國家的인 國力の 배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 第六次 ARCASIA 理事會議의 스케줄

회의기간 : 1985년 11월15일 부터 1985년 11월19일

회의장소 : 印度 孟買市 Fariya 호텔 및 Lonavla Fariyas 호텔

행사일정 :

1985년 11월15일(금)	1985년 11월17일(일)
각국 代表團 및 參觀者 일행 도착	11:30 Lonavla시 Fariyas 호텔 도착
13:00 孟買市 Colaba Fariyas 호텔에서 점심	12:30 ARCASIA 제1회의
17:00 住宅省長官 참석하에 '85 건축자재 전시 개장식 참석	15:30 ARCASIA 제2회의
20:00 프레지던트 호텔 카테일 파티 Fariyas 호텔에서 만찬.	20:30 Lonavla市 Fariyas 호텔 만찬
	1985년 11월18일(월)
	8:00 Karla 동굴 견학
	13:00 ARCASIA 제3회의
	1985년 11월19일(화)
	13:30 孟買市 도착. 孟買市내 Acad-emy of Architecture 大學 견학
	14:30 印度建築士協會 제작 "자연의변천" 시청각 show 관람
	15:30 자유시간
	20:00 Oberio Tower 호텔에서 만찬
	1985년 11월20일(수)
	대표단 귀국
1985년 11월16일(토)	
13:00 Fariyas Hotel에서 점심	
14:30 Abae 회의 Fariyas 호텔	
17:30 기자회견 Fariyas 호텔	
18:30 '85 建築資材展示會 참석	
19:00 ARCASIA 회장 자재전시 입상자 시상	
20:00 프레지던트 호텔 만찬	